

보 도 설 명 자 료

(‘18. 12. 18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기업R&D 지원 간판사업 ‘WC300’ 중단 위기

(‘18. 12. 18, 디지털타임스)

1. 기사내용

- WC300 후속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‘19년 상반기에 예비타당성 조사(이하 ‘예타’)를 신청해야 하나 진척이 없는 상황임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- 지난 8월 예타 탈락 후 보다 내실 있는 WC300 후속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업 관계자·학계 전문가 등과 논의*를 지속해왔으며, 후보 기업들에 대한 수요조사(‘18.11~)도 진행 중임

* (8월·9월) 중견기업 전문가 릴레이간담회, (10월) WC300 유관기관 회의
(11월) 정책전문가 회의 (12월) WC300기업·전문가 간담회

- 이를 토대로 ‘19년 상반기에 WC300 후속사업에 대한 예타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임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혁신과 박 훈 과 장(044-203-4370)
김상운 사무관(044-203-4375)